

2026  
완성

###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3 | 북새곡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온성이 몇 리런고**(의문의 방식이 나타남. **표현상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숨씨 아냐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화자)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암행어사로 보이는 사람)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태수가 암행어사가 술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화자가 암행어사임을

짐작하여 좋은 술을 싸게 팔.)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지방 장관직)야 너 언제 날 알더냐 ]([ ]: 부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화자)

여기부터 **종성**(화자가 다음으로 갈 곳)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전(行纏)\* 다 적시고 **동태**(온몸이 젖은 화자의 모습을 동태에 비유함.)가 되었구나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설의적 표현. 자신의 행색으로 인해 어사로서의 위엄이 없다고 생각함.)

저 기생의 말 보아라 [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땀시 더욱 좋다 짚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미역에 비유함.)이라 ]([ ]: 기생의 말을 인용함. **작품의 특징**

**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데

큰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 ]: 아까 전 자신의 초라한 물골을 조롱하던 기생이, 화자가 엄하게 징벌하는 것

을 보고 태도를 바꾸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고슴도치에 빚냄.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온성에 출두하여 죄인을 다스림.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2026  
완성

##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3 | 복새곡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숨씨 아냐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전(行纏)\*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

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맵시 더욱 좋다 짚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네  
큰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 자고 어디 갈꼬 부령으로 가오리라  
고풍산(古豊山)\* 어두울 때 원(院)집으로 들어가

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 깨서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네  
저고리 찾아보니 개자추\*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될네 중의 신세 면했구나  
남의 옷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부령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 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쏘냐  
(중략)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하였던가  
봉고파출(封庫罷黜)\* 꽤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몸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찌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어찌 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날날이 보고하니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아니 하면  
그 아니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화 하오리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쏘냐 형편이 하릴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봄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거의 도모하리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황씨(天皇氏) 일만 팔천  
지황씨(地皇氏) 일만 팔천 합하여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님께 헌수하자

- 구강, 「복새곡」

- \* 행전: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 \* 형추: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 \* 고평산: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지명.
- \* 개자추: 중국 춘추 시대 진(晉) 문공(文公)의 신하로, 면산에 은둔했는데, 문공이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음.
- \* 봉고파출: 어사가 부정을 저지른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고을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
- \* 낙송자: 소송에서 패한 사람.
- \* 부탕도화 하오리라: 어렵고 힘겨운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 \* 포택: 은덕과 혜택을 베풀.
- \* 음곡: 그늘진 골짜기.

####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공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역순행적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변화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암행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부사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신분을 짐작한 것에 대해 뿌듯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기생의 말을 듣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화자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조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임무 완수가 임금의 은혜 덕분임을 인식하고 있다.

####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기생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초라한 행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 화자가 자신을 조롱했던 기생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암행어사의 고난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조정을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 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태’는 온몸이 젖어 초라해진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미역’은 어사로서의 위엄을 갖추지 못한 화자의 행색을 낮추어 비유한 것이다.
- ③ ‘개자추’는 불이 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낙송자’는 소송에서 패배하여 원망하는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화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 ⑤ ‘음곡’은 임금의 은덕이 미치지 않는 백성의 삶의 현장을 상징하며, 화자가 선정을 바라는 공간이다.

5.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경험과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시간의 역행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화자에 대한 다른 인물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비판적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점층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6. ㉠를 통해 알 수 있는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방 관리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조정의 정책이 백성들의 실상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조정과 지방 사이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백성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④ 백성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 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7. 윗글에 드러난 '고슴도치 되었더라'의 의미를 문맥상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위엄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모습
- ② 자신이 조롱했던 대상이 권위 있는 인물임을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
- ③ 화자의 냉정한 처벌에 반박하고자 하는 모습
- ④ 자신의 오만함이 드러나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모습
- ⑤ 화자가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조롱하려는 태도를 숨기고 있는 모습

8.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기>

저근덧 밤이 드리 풍낭이 덩(定)하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瑞光) 천당(千丈)이 보이는 듯 숨는고야  
쥬렴을 고터 짓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돛도록 곶초 안자 바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 남대되 다 뵈고저  
뉴하쥬(流霞酒)\* 가득 부어 달다려 무론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四仙)은 괴 뉘러니  
아매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샤  
- 정철, 「관동별곡」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 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척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솜씨 아냐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배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전(行纏)\*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  
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윗글은 화자 자신이나 타인의 상태를 ‘동태’, ‘미역’, ‘고슴도치’ 등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상황과 인물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특정 공간의 반복적 언급을 통해 역순행적 흐름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보다는 공간 이동에 따른 경험과 감회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 ③ ‘온성이 몇 리런고’, ‘그 누가 두려워하리’ 등 의문형 진술이 쓰였지만, 화자의 궁금증 해소보다는 감정 표현이나 수사적 효과를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⑤ ‘비노니’의 반복은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지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정답] ②

윗글에서 ‘속 깊도다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는 부사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뿌듯해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화자는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등 암행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라고 말하며 기생의 말을 듣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아니 하면 그 아니 허망한가’에서 화자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조정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봄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등을 통해 화자는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임무 완수가 임금의 은혜 덕분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정답] ⑤

- ㉞은 조정이 백성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망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볼 수 없다.
- ① ㉟은 부사의 잔꾀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㊱은 기생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㊲은 화자의 위엄에 기생이 놀라 태도가 변했음이 나타나고 이를 ‘고슴도치’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㊳은 밤중에 화재를 만나 위험에 처할 뻔한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암행어사의 고난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정답] ③

- ‘개자추’는 불에 타 죽은 인물로, 화자가 불에 타 죽을 뻔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①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생의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이라’에서 화자의 초라한 행색을 ‘미역’에 비유함을 알 수 있다.
- ④ ‘낙송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를 통해 ‘낙송자’가 소송에서 패배하여 어사를 원망하는 백성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 ⑤ ‘봄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에서 ‘음곡’은 ‘그늘진 골짜기’를 의미하므로 임금의 선정이 미치기를 바라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정답] ①

- 윗글은 온성, 회령, 부령 등 공간을 이동하며 각 지역에서 겪는 경험과 그에 따른 화자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윗글에서 시간의 역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기생이나 화자의 말 등 인물의 말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윗글에서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화자에 대한 다른 인물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⑤ 윗글에서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점층적으로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정답] ③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에서, 북도 백성들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방 관리조차도 백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서 임금에게까지 그 상황이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 부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① 지방 관리의 무능함보다는 지리적 단절과 소통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이 백성들의 실상과 괴리되어 있다는 부분보다는 정보 전달의 어려움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④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윗글에서 외세의 침략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7. [정답] ①

기생이 초라한 화자를 조롱하다가 화자가 엄하게 죄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고슴도치’에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후회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더 크다.

③ 화자의 냉정한 처벌에 반박하고자 하는 모습이 라기보다는 충격받아 경직된 모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끄러움보다는 두려움이 주된 감정이다.

⑤ 화자가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조롱하려는 태도를 숨기고 있는 모습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는 감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8. [정답] 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선정에의 포부를 밝히며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윗글의 ㉔에서 화자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임금의 염려와 해결 의지를 전달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 암행어사 직무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⑤

윗글에서는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등 물음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등의 구절에서 물음의 방식을 통해 당시의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구체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윗글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보기>는 당시의 인재 등용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될 뿐,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절적 배경도 활용하지 않았다.

③ <보기>에서는 서얼 출신과 개가한 부모의 자식을 등용하지 않는 조선의 인재 등용 방식을 비판한 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윗글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기>의 경우 글쓰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는 것을 이상적인 인재 등용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반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윗글의 경우 바람직한 삶의 모습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반어적 표현 또한 확인할 수 없다.

10. [정답] ③

<보기>에서 글쓰이는 중국의 인재 등용 방식과 조선의 인재 등용 방식의 차이점을 언급한 후, 당시의 인재 등용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① 윗글에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윗글의 화자는 암행어사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의 글쓰이는 자신이 생각한 조선의 인재 등용 방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언